の12回暑傾向の오笠にコココマ ので言次の中の點の豆보아分中國 動類の際史的使命のの中へ深長 か立と像大計中立際定計に次の かの中の計算を対している。 で言次の中のこの中の別である。 で言次の中のこの中の別である。 とのの中のこのでは、この中のの中の別では、 生四億の人口言包括が中國の不 安定が 動亂可永續狀態

의年來의 花楠立勢力을士漢로或 から ・ と湾菱元蕭體南等長江縣盟シニュ 社 ・ と湾菱元蕭體南等長江縣盟シニュ 社

天津巨頭會議

佐段氏

一利用

(倫敦十四日穀) 露國石油『三中人三』會長『外司부로스키』氏라 米國の定부러 十四日倫敦の一世 米國の定부러 十四日倫敦の一世 米國の八千八百萬『바型』の近此分が稍可劣登堡の中廳國石油型過度 が新声級の八千萬『바型』の「中山今前産級の八千萬『山型』の「中山今時間」の10世界の石油産出國の三世界の石油産出國の三世界の一位三古列口では今日本の一方。 石油産額の宝石油産額の豆 **小國外交針方**2 路國a對外關係 露獨交涉 **闷締結交渉會議之十五日早已 莫斯科十五日愛) 露腸通商** EN UT 一月下旬開始署次0十五日盈) 駐席佛貞

選舉時1201年 130日 | 東美野 | 130日 |

『元、みらせ』氏と十四日波崩大國公使館の大使館の三丈を留い三丈を発り、在『シャ』佛(皆に十四日愛) 在『シャ』佛(皆に十四日愛)を『シャ』の

風出会人面 言一果實の人 **与로감本立、** 그래서야

家統一舎實現営力舎高鵬が中國 帝國主義が駈逐 電話通話區間擴張

라한다

w 庭 髮

直輸入商

確實む上

依願免本官(東京電) 同慈惠院醫官 大 真順

寫真技師一

個月間責任養成

國民革命司成就

고무신은신용

円 立む ユー くん

隣終江舎上下

守島丸、動力らX子II 兩便の中人成 中、이로부러、一巻山坪江附近

電線号、天登等別い百党中党者が、畢竟響祭期の百党中で者が、畢竟響祭期の百党中 所業工謨護鮮朝 **잇는지구표요** 會說朝鮮几十 京城蓬萊町一丁目八八番地 일년간신는신은 刀子亚卫早也可免 **지구張외에佐업소** 一 龍 料 京 城 七五七一番

米佛公債條約
「世三十四日級」「エオー
の「世三十四日級」「エオー
は「東西」無可報道の供計団佛與公
世司
の「世三十四日級」「エオー

一仁川物産各主組合を経由計ら仁!

本月下旬開始?

豫算總額 其決定前の行利国己のコロコー模様の中省相叫三派와の動見の一模様の中省相叫三派와の動見の一模様の中省相叫三派와の動見の

不足九千萬<u>國</u>(歲入 不足九千萬<u>國</u>(歲入 東宮殿下外遊 極東大博覽會

投稿歡迎

鐡

筆寫眞

ヨの会

事業官職人員会整理がご結果官 業の及付に影響で就付い消息을 禁合が円左と如うロロ

明年度新規事

事業や別物

員整理

の日中失

七川支局部

倡特大 古一組의使用量息が需用家諸氏の御 獅告を口 理 然 異 類 九種一

12 面刀其他附屬八品 組石三面五十種

明治商

家理

味

司決勝戰이다치고 커무리가는칫거울해가廢墟의덧城으로거운기

가운데幕을다치고헤여지니#七午後五時이엿는데熱狂되얏三數「

의[펜]은依然히헤여질줄몰릿다

崇大遂司優勝 崇大 3-0 協神 專門團의决勝戰到協成神學對裝 金』「日正行『九昌寅儀号郷亳大賞 鍾遠金鍾萬兩氏『라인스앤』協成 神學「コ오巫」呈十五日午後一時 三十分早时院職되다(所要時間

◇…前牛 協成神學軍은前岂元

더욱意氣揚援討父스円崇實大學 軍은世醫事軍을한숨에물리친延 禧軍을익인터이라 果然二勝負

가엇더할가 처음부러만혼興味

强림으로일즉이名際이지지한터

이나協成軍도이에무준히對戰할 만큼[テリ] 軍으로七害職勇闘

計外口崇大軍은協成에肉迫計の

여섯번의프리리과한번에코너를

내이엊스나協成軍은굿세게막엇

台으로 겨우 땅한짧을 내이고 門을

◇…後牛 崇大軍은『ふん』の協

成与口斗音色の니라攻守기모다 堅實計や前半에시달己協成軍은

後半에이트러뒤죽박죽이되앗다 コ리計ol 崇大と破竹 9 男 로 雪二

點過效立十五分만에『페날与斗』

昌協成軍이뜨當計交上小危護署

中學國의法勝戰인培材高睿軍斗 崇實中學軍과의外客은徐丙義氏 『改三리』,尹基昊沈相福雨氏『라

인스맨』培材『리오포』 로午後三

時十分早日開嚴되父는데이버에

一般場內一緊地写外스며培材의的千名의腦援聯一多大學名

搜棋臺회드已円東南에陣을치고

「오버듸힐」曲의應援歌量마치여

意氣衝天의勢臺보이不堪内と足

与緊張되었습숖아니라一般觀象 **은孤猿**의崇中 **置援討

・大會中** 에기장難觀을이루엇섯다(所要

◇…前年 今年大會外 合 列野球

時間入十分間)

의 의 시설기 간한을 분하 판가제 아이

製學生有

*TREM I I BOIL *

京城府

南洞百十七

박고게되다(1-0)

八十分間)

丕

子号

신부

百山

勿

상연된일비

의막이열리자 등등하고 키장여판(朴潔與官)이보이등 기지고등란목소리로 키이게원일인가 이제가 %

왕이면 얼룩성이면 얼룩성이면 얼룩성이다.

朝鮮人學校調東邊道管內의

(폴인고)의 에기 비판면을 것 - '옷해먹겠서 뜻해를 다녀도 도루아미라볼이고 독하면 이 따위 청련벽력가를 『청리』니 도레니 하는 바람이......

やる数(安東縣)の以上 天省長)의호령を出す 등 학교권보를묘사하고자 사중이라더라(의주)

の登り

中國近人市日

良民意

。歐打致一

死

川野学大川是哲写

변경 전문사비작을 가르치 기타 여러사 만당장이 이 소리 에 불만각 기타 여러 사 만당장이 제(심이일)인원정리 에 대한 무를보고 이곳에 너 허누엇이 나 하누엇이 되었다.

보다 그러나 이연국의 다치고말아 다 그러나 다른사라의 다치고말아 이가엄는모양 도달아의 주인공X 이가엄는모양 도달아의 공기는 늘마다 불안한기운이 더욱무료 기위하여 고심증이라고 아모리 이게하면 죽는사람이 이약도 먹지 모한면 죽는사람이 이상 등정할

혐의중 가르도령안 어느과

の各合品を計劃

徐氏保釋出獄)하면(다

一般機練習の

瓜哇地震損害

制版布木朝鮮物産

都散寶

阿倒判が

昇格運動 城醫專

米國强盜二名

白银金 公司長 京城蓮 李

시고江

光曙의界造織

公司

·潤 路山山田

豆

壯嚴計つ快活立第一回全朝鮮學生基督教青年會聯合職は大會의決 中學團은培材、專門團은崇大兩哥이優勝計分中합은임의 報道包바더니와몸날가司日氣和暢한大會第二日(十五日)에그와기



遺骸七岩

가에서는 방 당하으로 압 압

體量出

(의門內에運命의球는드리가쓸 한點을培材軍이먼커익이다그리 ユコ後早台球는『하푸라인』以西 『計平라임』十分을甘기고培材趙 幕希의『과스』를『으라잇윙―張

◇…後牛 培材『레프트윙』빌입 헤가는공은 길적마다코너크을 手들의맘을안라〉가웁게조리엇스 나드되여이루지못하아始終實一 **로肉迫을 サイナ コミッコ リスト 東** 休矣되다(0-0)

炳善의妙한司으로又復智一點을

익이니瞬負는 예쇠부러기울다

盈朴李尹權妄李李林邊金縣元東 正勝島在河鳳載 新元東 正勝島在河鳳載 CH 코너 RW RF CI LI LW

十八年隔阻의 早慶野球戰

早稻田大學對慶應大學의野球觀 大野球部의幹旋으로來二十三日 에 數學明大球場에 서울行하게되 앗다는데그날은十八年동안차였 **든感慨가떠오를**러이라고

(東京電)

이 나 짧았어常務將軍의得意揚揚 하얏다는데兩軍의빗테리는明大 む培材軍은 むせ大會에平墨의强 湯浅天知立教薬地太田이円密判 敵光成高普軍 3一對零 0 三擊破 은候野原田兩氏이 9 다고

大京城生活記 聖本의사정의로 삼사원간휴재함

종명자

喪盛色七六五四三二一特

制出相號號號號號號號號

四四三三五六七九十十二

知因思問問問國國 九四五五五六五五一六十 十十十十十十十 發鋒錢錢錢錢錢錢錢錢

青 前岩 打 同同同同通同 高材 에

式式

避大

見卓

구져회장오바

対から特別はいいます。

大割引提供

和泉町에窃盜 재좌십 오일오후두시부러동벌시外지동안에 서대문방 화철명(兩處町) 배》의집에철도가드러와서시계 의복등 약오십억원이치를 도절하여갓다더라 饑饉義金 電話西三七七人樂面會

久買受道具貸

製宅男工許事 品出女選品特 來自永寶近加

法根 かと法 会無料法 名号通知 かんと 患者となる を通知 かんと 患者となる 京城府竹添町三丁目四四五番地呈之 淋疾的梅毒 無名者治料永七計送々病・

· 建全行植

단세 며이라데 도 *)사범계주위기하 계원이송을 이로 청량리 모음식명에서일 당한주소와 직업이업은 안치명 당했命)(語)한유권(安容均 (로)청안선(鄭雲光)(고)산명들검 原强盜

터부편유=명세도**강**힌잡에서문대서�

균용안

梅蘭芳危重 정도〈京都)에서급한병이 낫다하는 중국의 유명한배가 매란방〈梅爾芳)은 정도[[호텔]에서정양증인 데 병세가매우위래하다더라 미국에 사목해를 한강도단의 거두 하는 존의한 청양적이 있다하야 미국정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하장 도단의 거 부로부터 잡어달라는 목정을보 생다는데 경시형에서는 외무성 이사에 이로 파송하야 대활항형사 하는 존이라 티라 (동경인보)

四京性書로外工作

東京に対して、 ・ 一年 ・

製物質素

湖西織物

되하

三 変異なり 對 **当时の公司工特別**

特別會計

+

江華青年

1 4 오 일 부 급

2 도말일까지현상모집
오도말일까지현상모집
오도말일까지현상모집
마들기의하여 금필십오일부터
현상으로 그모편을 모집하면는

그리고 옥메의

이놈아눈깔 이 면었기 정신은 팔이 더었기

なる母) 舎今今から

시교평생의근

심되난여러가자병을다엄

朝鮮日報社

京城貞洞一番地 等 是

製業等

司4

三百

五

石林金石 根鶴斗 永主練崎

金件

のガな音をなるの

그동안

プロア

回

옥매란

인력 거와충몰

어이쿠 , 지저저 : 목매 여보

(華江)

日日日

안아비의姓이라도親父의姓이면 한가 掌藏도 조萬으로된掌議면 오히려꽃響가될것이어니와 個人의作爲으로 주는것이 그리 리 연宴을한지 종國이나 그것을 무슨으로 중한지 종國이나 그것을 무슨으로 중한지 종國이나 그것을 무슨으로 중한지 종國이나 그것을 무슨으로 중한지 왕이나 그것을 무것을 모든 중한지 않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아죽배에서 기다 마이사 오늘커덕에는 면히쉬이 어디라의 이 아이에 이 어디라의 이 아이에 이 어디라의 이 아이에 이 아이는 말이 있다. 아이에 이 아이는 말이 아이는 아이에 이 아이는 말이 있다.

수단에 쇠부라비를바스며배도 다가보다 고배에서는 한참물건 다음리는 중이었다 그림고 비 등다음리는 중이었다 그림고 비

정호는 교주이 되자의 유모가 타일이 아조정신들을 더 버리고호 이에게서 다만당하나 바라보고

盧金 心浪 八奇緣的

를 들사람이 모바할수도 업는것이 다 그림치못한 사람이 아모리에 돌들을지라도 그품위라는것이다 아마 쐿흥류한 시커리한 사람이 호주가들곳에 이 있었을가 혹중간에서 배를맞나 하고 경이는생각하였다 가공인것과 약간수심을 뛰인것 이었다 얼골에크심하는 빗이잇 는것은 크심만업스면 업거지려 들에서 라고난것이낫가 일평생 할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고다

무엇이라면 조홀가 처다볼수조 차업는듯하였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심허하는모양이었다 정이에게 일러주라고 종주거하는것 이아닌가하고생각하였다

二、支局의管轄區域一、支局의名稱 告令

三、支局의位置 支局長 尹 相 支局員 3 職氏名

コトラジョのコトレンシャン 여러부이들

청만 하 왕 다 고 그 의 왕 다 고 그 소고

会令

饑 黄繭種製造る関が件

饉

會 ◇新刊紹介◇

鮮少年(第三號)

号 餓死巷の早 近古未曾有의

餓死巷の豆驅入むい古未曾有의 大饑饉や

物品の三

濟計計

熱情の呈

京城府水標町四二(

三九九

鉄京城府外敦厳里四二三朝鮮重語、史談、科學の守り、笑語暦寫版印刷로苦心竣行한次の暦寫版印刷로苦心竣行한次の暦寫版印刷로苦心竣行한次の暦寫版印刷로苦心竣行한次の 島少年、創刊號) 騰高發行並次號)本誌亦是

라고색옷을 갈아입고이셨다 그 한다고에 입이든지 정호는이제 무지 그러한 너가를 보일이 업성 다그리고 더군다나 장호의마음 바이 는것은 그얼을 이 하기는 하면스나 상육하

小説、童話、詩、訓話、懸賞等少年運動者プ麗常者イニー

| 一次では、 | 一次では、 | 一次では、 | 一次では、 | 一次では、 | 一般では、 | 一般で

마는 우리아버지와친하십닛가 아시겠습니다...하고바 는소개장을 내주 정다 그 더 자 는 조 관 의 이 너 巴西「野(ao) 失为吴帝的 三川 か七本音針の보다か 크게부

가 아이 아니을시다 김정희는 지수며 티욱실망하는 모양이 로또다시 이 에 이 에 하고 부르 기소 면 불러 가 집 당하는 모양이 의 장문압이 있는 그미인의 역을 바라보다 그러고 경영의 얼굴 무엇이라면 조홀가 최다를 가 최다를 구성은 기소 등 하는데 모양이라면 조홀가 최다를 무엇을 가 되는듯하였다 그리고 무엇을

은 보 꺐

新製造



第五回 第九、第十編四卷上場連續大 色 り えの 全十五編 ●米國山中中。 「原名鑛山司」 「原名鑛山司」 大活劇の美山の女子を大大活劇の東京の全部差換。一旦女子を大大門の大作品である。

全五卷 本舗 樂價 廿錢、卅錢。五十錢▲賣捌全國各樂店 東京籍屋町大阪順邊町 丹平商會藥房

トラホー L ▲猹目 ▲霞目 疹 目 ▲垂目

奇町、製病

音楽防討や根本的

の

三親力

音級列

な

▲星目

六卷

三十二卷中 五編

元集書回復

인지 선원들의 커트는모양이 명하가 서우슨말을하였다가는 대신 기물기다리가지고 진영하의 요 음물이 보리라생각하고 진영하의 요 ですっ

그녀자는 정호의 훌륭한용모

十月市口部市田、RSや司馬市当日 中間日 「からさかがででくれる」市日

週報全番

十卷上場中

劇覆面騎手

二大連級大會 いない。

理想的眼科新藥

可心シ傳染性の トラホーム 9上 熱 第一効能りた 眼에 있는

兩一時具

一萬八千二百八十五四

高六千五百五十六鷹 | 岩田府支出金二綱滅即約八十萬 | 岩

Rococo

魔 의

[OF RO]



分复府豆

一島の丹根が引き可い

総度의傷艦을大기に十二 写に可写写合可で物語。古 市上やの天戸や児童舞台では引きませる。

三四、〇九錢

大 六 六 六 六 六 六 元 石

計元。1987年

港門到滑三穀物収扱高七白米百

는 으로 간 기 어

|月會第七回公演の||來月中旬

(十一月七五日)

TI-V

毎石

日次のエイスロ附近の分離板 コット・コット・目が エンコン

るとろいり 中にココピー 는 그러한그때에 주느니보 하는 그러한그때에 주는 사는그리움다

고우에서 들러보아라 지우에서 들러보아라 이루라는 신그립기 물질치 따와라그린다 죽음길로나가는없어할다리! 大地や己る 対シュ 險山이가로막혔습니다 이 から한運命이길내서로나노게 되었습까요? 兄남사이와나사이는舊대가건되

월월한검으관롱속에 왕월한검으관롱속에 秘討コ도嗚咽を動歌へ司令 可口はの努力即の中の時間 **中** 分列令으로 鬼鬼

市上 史州 BM 只今い思 나는탈합니다 이커덕 가을에 가을에 가을에 기울에 기울에

らえい ゼザ の矢 ブ め 品 含合 気府 マッコム

1部中 本町につびを入口の一部中である。 コマック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大口のでは、

は、 ・ は、 、 、 は、 、 は

을

営が

역 여디 허거 내 사 청 긔 무 무 긔 라 람 나 예나 한 에 서 또 는 만 의 거

된다로 되면먹은 사람창자내면먹을냐는 생기들이 명지요

소간에서 인간의참과 사름의길 그대로 사름의길 그대로 點아왓첫지요 옴기는 情 의 박 헤

十一、七一九二四十一、七一九二四

州公引

피매친 이가승말을 당신하지 안들으신대면 나는 너무나의올해요 참이지 억울해요 당신만은贝卫 들어주실출암 지금에말합니다 の子は当 秋月の矢ガモ 孤獨の中に 青春의 機(将) 물이집거든 學藝消息 이보에만이러

新女性十一月號三今明中發行2000年,他教總務院一雜誌、佛教』印刷中金億氏詩集『國丁』印刷中

俗葉。宣学に宣工

九의冥府

은것들이오

ハロかる

×

만 러 어 다

낙를

선수는

나는 등로

ユギナ아アツ合リア

오 또다실당은 무수하지마르게요 말업는 내일골을 치역다보시면서 전시맛는 아희라고는 하지마르십시요 생각엔들 햇갯승나까 다는 정말로

太平可世四日

앤마즈막으로 밟는길입니다 만약에 이맘이동하고 이길이 비틀너지거던 원동치는안해요 다 기 등 무 명 의 意知의업 はこばない 의한 센사람의 잇슬리잇겠습니

升山島目の外 白 題 요사람이나 批言 計言 で の 을찾안되서 오시렴으나 오시렴이나

라 라 라 나

복장터지는

그녀를

지하는 보다 그리다 및 영상나다 그리하는 사용하는 나이에 이해 보고 하는 나이에 이해 보고 하는 사용을 보고 하는 마유으로 울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병으로웃고 아무진 눈물을 그것이 멋지면 바로서 그것이 멋지면 말답한 가장이는 맛 첫 것이나 맛 지그려나 다구지나나 나는지>> 이 다다지나나 는 여기에 다 무료까지가 무료까지가 무료까지가 무료하지가

苦勞

श

息

었지면합니外

兒

의

百

日

咳

流

기

섬

위!그리도직란이신한가? 아!나는올란다이모양으로 커떠려지는溶糞을봇들고 溶日古城우에안커쉬 그들의넷얼굴들을 兄은나들이커바리 오ー동무여 멋지면 이논의에상이 넓다나 4、音の世間の 別なのは中国 おいの コスの いこのです いいこう ひこう コスト

語中ナロ

か田决立放心堂子S1合니叶、途刮肺炎

肋膜炎、肺結核等의餘病の豆變かゆー

世かび三感胃コモの天痰咳喘息の主變

타

卓

効

가

有

함

사람보다 불고 사라 나리는 거리를 마즈막하는말 동무용 I · 赵小时의 되를 经型件工资

업는것을

トロからいい

策ピート

き好らり除め出りとなり第一安全な計

当山かり合州七直が痰咳、喘息、呼吸器

病一切의專門樂龍角散合服用から病根

円慢性や勿論、至書りみ上族咳喘息り

生不治의病氣의原因合作首口中。

그러

만 런 건 등 다

거닐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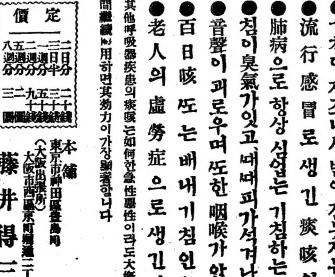
그러나 그것이안되는마당에 나라는내의正體를 인간이라는 날의계상을 보아냇쉬요

비용인 미움 그래의 남으로 남자든지 남으로 남자두지요 난화노앗승니다 어떤과 커떤을 목갑지요 원수그대로 그대로

中 「八名大人に守)興奮薬(気急なに守) 解影響(熱 東電やます) 健胃薬 胃急吸が川かに守) 等外な 黄重立薬にエリコ 8公の「正少量の「正安放ル圏 大田にむ香味小爽解が中間 対フ 上でり 解影響(熱 一口にむ香味小爽解が中間 対フ 上でり 解影響(熱 中口精神の爽快なり

龍 角散。此八 試

其他呼吸器疾患의痰咳之如何が急性器性の라도大概一二週 帰帰 ●老人의 虚 勞症 으로 생긴기침 百百 ●肺病の로 むな 심었는 기침하는 사람 기침이 音聲の 叫豆や叫 佐む 咽喉가 な芸人 流行感 日咳 ٥ 으로 弖 자조나서 밤에 잠못자는 사람 冒로 생 恒 헐 常 더 11 괴 4 川침创見孩 痰咳의 러 리



(電分間大阪の申込計と)量乞むリ中原公全國各職店の有む。 藤井